랩 위드의 기술사업화 인사이트

2026.09.28 (월) | 오늘의 주제

[AI 활용 기초 시리즈 ④편] AI 에게 일을 맡기는 순서 설계하기 _ 워크플로우 설계 기초

1. 오늘의 기술사업화 뉴스

- (정부 정책) 국토교통부가 9 월 29 일부터 전국 4 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AI·스마트도시 혁신인재육성 사업(2026~2028 년)' 공모를 시작합니다. 대학 4 곳을 뽑아 올해 대학별 2 억 8 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2 곳 이상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과목의 30% 이상을 AI 를 도시 분야에 적용한 과목으로 짜야 하고, 산업체·지방정부 연계 프로그램도 필수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아주경제, 2026.09.28〉*
- (사업화 동향)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혁신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더하기창업'의 지원 대상 100 팀을 최종 선정하고 9 월 28 일 킥오프 모임을 열었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7 년 이내 기업 474 팀이 지원해 4.7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정팀은 12 주 동안 대기업 퇴직 임원의 1:1 자문, 기술 검증, 대기업·중견기업과의 사업 연계, 투자자 대상 발표(IR) 기회를 받습니다. *〈출처: 뉴스핌, 2026.09.28〉*
- (투자 동향) 핵융합 장치 부품을 설계하는 인애이블퓨전이 퀀텀벤처스코리아·D3 쥬빌리파트너스 등으로부터 450 억원 규모 시리즈 A(첫 정식 투자 라운드) 투자를 유치해, 9 월 넷째 주(21~27 일) 투자 유치를 발표한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AI, 고온초전도체, 삼중수소 연료 분야로 사업을 넓힐 계획입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9.27〉*
- (투자 동향) 바늘로 찌르지 않고 혈당을 계속 재는 측정기를 개발하는 아폴론이 50 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이끌었고 신용보증기금과 미래과학기술지주가 참여했습니다. 같은 주 투자 흐름은 혈당 관리·체중 관리 같은 건강·뷰티 분야로 모험자본이 몰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9.27〉*
- (AI 산업 동향) 아고다가 9 월 28 일 동남아시아·인도 개발자를 조사한 '2026 AI 개발자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AI 로 매주 7 시간 이상을 아끼고 있다고 답해 2025 년(18%)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86%는 AI 결과물을 항상 또는 대부분 직접 검토하고, 79%는 AI 에이전트(스스로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AI)를 실제 업무에 쓸 때 사람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디스커버리뉴스, 2026.09.28〉*

※ 추석 연휴를 마치고 'AI 활용 기초' 시리즈 ④편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 아고다 조사는 본문에서 '사람이 확인할 지점'을 정하는 근거로 다시 살펴봅니다.

2. 오늘의 한 조각 _ AI 에게 일을 맡기는 순서 설계하기, 워크플로우 설계 기초

[AI 활용 기초 시리즈 ④편]

지난 세 편(9.14~9.18)에서는 AI 의 종류와 용어, 자체 모델, 그리고 AI 를 감싸는 틀인 '하네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틀 안에서 AI 에게 일을 어떤 순서로 시킬지, 곧 '워크플로우 설계'를 다룹니다.

워크플로우는 쉽게 말해 '업무 순서표'입니다.
많은 분이 AI 에게 던지는 지시문(프롬프트) 한 줄을 다듬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시문보다 일을 어떤 단계로 나누고, 어디서 사람이 확인하느냐입니다.

한 번에 "사업계획서 써 줘"라고 시키면 AI 는 그럴듯하지만 검증하기 어려운 글을 한꺼번에 내놓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단계를 나누면 단계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오류가 다음 단계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를 단계로 쪼갭니다. 기준은 '한 단계에 결과물 하나'입니다. '공고 요약표', '자격 충족 여부표', '계획서 목차'처럼 단계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씩 정합니다.

둘째, 순서를 정합니다.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도록 줄을 세웁니다. 사실을 모으는 단계는 앞에, 판단하고 글을 쓰는 단계는 뒤에 둡니다. 사실이 틀린 채로 글을 쓰면 뒤의 단계를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이 확인할 지점(체크포인트)을 정합니다. 모든 단계를 사람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사실을 확정하는 단계, 판단이 필요한 단계, 외부로 나가기 직전 단계처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곳에 둡니다.

단계	결과물	맡는 쪽	사람 확인
① 공고 원문 읽고 요약	공고 요약표	AI	필수 _ 마감일·자격 원문 대조
② 우리 회사와 비교	자격 충족 여부표	AI	③단계에서 함께 확인
③ 지원 여부 결정	지원·보류 결정	사람	필수 _ 대표·담당자 직접 결정
④ 평가 항목별 목차 작성	계획서 목차	AI	생략 가능
⑤ 목차별 초안 작성	계획서 초안	AI	생략 가능
⑥ 검증 후 제출	최종본	사람	필수 _ 숫자·출처 직접 확인

위 표에서 사람이 반드시 확인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사실을 확정하는 ①단계, 판단이 필요한 ③단계, 밖으로 나가기 직전인 ⑥단계입니다.
나머지 단계의 결과물도 파일로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아고다 조사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동남아시아·인도 개발자의 55%가 AI 로 매주 7 시간 이상을 아끼지만, 86%는 결과물을 항상 또는 대부분 직접 검토하고 79%는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쓸 때 사람의 승인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AI 로 시간을 아끼는 일과 사람이 확인하는 일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AI 활용의 성패는 지시문을 잘 쓰는 기술보다 '단계·순서·확인 지점'을 먼저 그리는 데서 갈립니다.

다음 편(9.30 수)에서는 이렇게 나눈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방법을, 공고 분석에서 계획서 초안까지 이어지는 실제 예시로 살펴봅니다.

※ 출처: 디스커버리뉴스, 2026.09.28 (아고다 2026 AI 개발자 리포트) · 랩 위드 내부 정리 (2026.09.28)

3. 실전 체크리스트

✔ **③ 실전 체크리스트 _ 우리 회사 AI 워크플로우 첫 설계**

- 이번 주에 반복하는 업무 하나를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 본다
- 각 단계 옆에 결과물을 하나씩 적는다. 결과물이 두 개 이상인 단계는 결과물 수만큼 단계를 나눈다
- 사실을 모으는 단계가 판단·작성 단계보다 앞에 있는지 순서를 점검한다
- 숫자·마감일을 확정하는 단계, 판단이 필요한 단계, 외부로 나가기 직전 단계에 확인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둔다
- 단계별 결과물을 날짜와 함께 파일로 저장해, 틀린 곳을 되짚을 수 있게 한다

4. 이번 주 마감임박 지원사업 (중앙정부 70% · 대전지역 30%)

- **[중앙]** 2026 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참여기업 2 차 모집 공고 **(~09.29)**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 2026 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장) **(~09.30)**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 2026 년도 한국도로공사 청년 AI 스타트업 지원 시범사업 **(~09.30)** · 창업진흥원

- **[중앙]** 26-2 차 방위산업 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 참여기업 모집공고 **(~09.30)** · 국방기술진흥연구원
- **[중앙]** 2026 년 3 차 재생에너지 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10.0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중앙]** 2026 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10.0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앙]** 2026 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공고 **(~10.02)**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 **[대전]** 대전창업성장캠퍼스 제 3 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10.02)** · 대전테크노파크
- **[대전]** 2026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MEDICA) 단체참가 참여기업 모집공고 **(~09.3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세계한상수출상담회연계 2026 년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모집 **(~09.3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연휴 중 일정이 바뀐 공고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랩 위드 지원사업 브리핑 (2026.09.23 기준).

AI 를 들였는데 결과물을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고치고 계십니까? 공고 분석부터 계획서 초안까지, 우리 회사 업무를 단계와 확인 지점으로 나눈 AI 워크플로우 설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 'R&D 사전기획' 컨설팅 상담

상담 신청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cafe.naver.com/techcomwith

▶ **더 보기:** R&D 사업계획서, AI 로 '대필'하지 말고 '구조화' 하세요 (cafe.naver.com/techcomwith/555)

▣ 랩 위드 컨설팅 솔루션 _ 사업화 전 단계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합니다



랩 위드 AI R&D 전략 분석 플랫폼

"R&D 사업계획서, AI 로 구조화"

- 공고·RFP 분석 → 평가항목별 맞춤 전략 도출
- 정부 과제 DB 2,900+건·선행연구 검색
- 평가위원 관점 피드백으로 완성도 점검



IR 컨설팅 솔루션

"기업진단부터 모의 IR 까지 4STEP"

- 기업진단 → 투자전략 → IR Deck → 모의 IR
- 피치덱 10 장 구조·트랙션·Ask 설계
- 7 회차 온라인 관리로 단계별 코칭



기업진단 솔루션

"우리 회사 사업화 준비도 점수화"

- 기업정보·재무·기술개발·정성평가 종합
- 강·약점 종합 진단 리포트 자동 생성
- R&D·투자 준비 우선순위 제시

◆ 랩 위드 채널 _ 지금 바로 연결하세요

랩 위드는 매일 중앙정부·대전지역 12 개 기관 지원사업을 수집·분류해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브리핑·인사이트·AI 분석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결 _ R&D·사업화 전략 수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 [2 기 모집] R&D 실무교육 아카데미 _ 될 때까지 지원하는 실습 교육

2026. 9.28(월)~10.2(금) | 과정별 1 일 완결 |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교육장(대전 중구)

- 참가자 본인이 보유한 기술로 그날 R&D 연구계획서·PSST 사업계획서·IR DECK 을 직접 완성하는 실습 과정입니다.
- R&D 평가위원이자 전문개인(엔젤)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하고 지도합니다.
- IR DECK 는 블루오션벤처스 이준희 대표이사(전문개인투자자, 블루오션투자조합 사무국장)가 강의합니다.
- DAY1 · 9.28(월) R&D 연구계획서 작성 실무 _ 30 만원 | DAY2 · 9.29(화)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_ 25 만원
- DAY3 · 10.1(목) PSST 기반 IR DECK 만들기 _ 25 만원 | TRACK B · 10.2(금) 계획서 진단 클리닉 _ 15 만원
- 이어지는 기수: 3 기 10.13(화)~10.16(금) · 4 기 10.27(화)~11.2(월)
- 날짜별 개별 신청 가능 · 각 과정 정원 4 명 선착순 마감
- 신청: 홈페이지 www.labwith.kr 실무교육 아카데미 페이지의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골라 신청하십시오.
- 문의: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 카카오톡 ID antipoto

기술사업화 랩 위드(주) 조남주 대표이사 · 공학박사 · 전문개인(엔젤)투자자

☎ 010-6408-8557 | antipoto@gmail.com

대전 본사 (34897)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15 번길 56, 진호빌딩 301 호

홈페이지: www.labwith.kr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techcomwith